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 충실함, 성, 안수 및 결혼

By Barry Ensign-George and Charles Wiley, 신학과 예배 부서

미국 장로교는 안수 및 동성 결혼에 대한 최근의 결정들 속에서 도전의 길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 교단으로서 동성간의 성적 관계들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결혼 관계나 어떤 형태로든지 명백한 헌신적 관계 하에서)을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할지 말지에 관해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두 번 취했다: 안수와 관련하여 그리고 결혼과 관련하여. 이것은 우리 교단이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시는 지에 대해 서로 상반대되는 두 입장이 모두 합법적이고 충실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교단의 입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관계를 맺도록 부르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또는 성별에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관계를 맺도록 부르신다고 선포하는 것은 둘 다 모두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 들이고 이러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도전의 길을 탐구해 보려 한다. 첫째, 안수와 결혼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단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성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다른 교단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우리 미국 장로교의 교인들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이슈들을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기도 했었다. 즉, 매우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해 획일성 (uniformity)을 선택하기도 했다. 둘째, 우리가 왜 이러한 도전의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이 도전의 길이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 개혁 전통 및 장로교 전통과 부합하는가?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들—밖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 내에서--에 직면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왜 이 도전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룰 것이다.

I. 우리가 선택한 길

우리는 ... 을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0년 미국 장로교 총회는 우리 교단의 장로들과 집사들에 대해 명시된 기준들을 수정하자는 규례서 개정안을 노회들에 보냈다. 그 기준 (1996년에 규례서에 추가됨)은 우리 교단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 언약을 충실히 지키며 살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정숙하게 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해 놓았다. 노회 과반수에 의해 승인된 그 개정안은 충실한 성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명시해 놓은 그 기준을 삭제했고, 대신에 공의회들이 후보자들을 안수하거나 위임하는데 있어서 “성경과 신앙 고백서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책임을

강조했다.¹ 교단으로서, 우리는 성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안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교회의 공의회들이 이 영역에서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 상충되는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결혼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도전의 길을 걷고 있다. 올 여름 (2014) 미국 장로교 총회는 결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권위 해석(AI)과 규례서 개정안이다. 이 두 가지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도전의 길을 걸으려 한다.

장로교 총회는 주법이 허락하는 곳에서 목사들이 동성간의 혼인 예식을 집행할 수 있고, 당회들이 그러한 예식을 위해 교회 건물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는 권위 해석을 통과시켰다. 이 권위 해석의 두 가지 특징들이 우리가 나아가려는 도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이 권위해석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절제하고 있다: “동성”이나 그와 유사한 언어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에, 이 권위 해석은 “커플”(a couple or the cou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둘째, 이 권위 해석은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자신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혼인 예식을 집행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동일하게 충실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혀 놓았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목사들의 양심은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외하고는 어떤 커플을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한 혼인예식을 집행하라고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 교단으로서, 우리는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을—심지어 서로 불일치 할지라도—모두 똑같이 충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또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두 사람”으로 바꾸는 규례서 개정안을 노회들에 보내어 표결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또한 권위 해석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도전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개정안도 언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절제하고 있다. 그것은 결혼을 “두 사람 사이”와 “커플”(a couple or the couple)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동성”이나 그와 유사한 언어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그러한 언어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권위 해석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이해들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주는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목사들이나 당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그들의 분별 및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상반된다고 믿는 혼인식을 목사에게 집행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러한 예식을 위해 당회로 하여금 교회 건물의 사용을 인가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혹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관계로 부르신다고 선포하는 것이 똑같이 충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가 우리 앞에 내어 놓은 제안은 교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해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두 가지 분별—비록 서로 상충될지라도—을 동등하게 충실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¹ 이전의 정책은 그러한 해에 발행된 규례서의 G-6.0106b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정된 언어는 규례서 G-2.0104b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교단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다른 교단들은 충실함과 섹스에 대한 심각한 불일치들을 우리와 다른 방법들로 다루었다. 제 220 차 미국 장로교 총회의 지시에 의해 준비된 최근의 결혼 연구는 교회 직분을 위해 안수 받을 때에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성공회 (The Episcopal Church)와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는 교회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게이와 레스비언들의 위치에 대해 긍정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긍정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안수를 허락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교단은 안수에 걸림돌이 되는 공식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길을 선택하면서도, 동성 관계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미국 장로교는 안수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길을 선택했고, 양심적인 장로교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쪽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동성간의 결혼 문제를 심의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는 게이나 레스비언들 사이의 헌신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정치적 입장도 없는 상태이다.²

때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신학과 정치에 관한 질문들로 인해 첨예한 내적 분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때로 한쪽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응 (uniformity)할 것을 요구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1970 년대에 여성 안수와 관련하여 그러한 선택을 한 적이 있다. 목사 후보생이었던 Walter Wynn Kenyon 이 피츠버그 노회에 의해 안수 심사를 받았다. 키농은 여성 안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와, 왜 여성에게 안수를 줄 수 없는 지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미 안수를 받은 여성들과 기꺼이 함께 일할 것이며, 또한 그가 섬기도록 부름 받은 교회에 의해 교회 직분자로 선출된 여성들과도 기꺼이 함께 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목회자로 하여금 그러한 안수식을 인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를 심사한 노회는 키농에게 안수를 주기로 표결했다. 하지만 노회의 결정이 교회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결정이 번복되었다. 우리는 관행 (practice)과 정치 (polity)의 일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안수 및 결혼과 관련된 최근의 결정들은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을 안정화시킬 헌법적 입장을 취하려 한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판결--미국 장로교 안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쪽 입장 (uniformity)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키농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러한 염려를 갖게 한다. 한 판결이 여성 안수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고착화시켰다 (Kenyonized). 키농 사건의 판결은 “차별하지 않음”(nondiscrimination)을 강조하는 규례서의 언어에 기초하였다.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² Presbyterian Church (U.S.A), Christian Marriage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 Six-Week Study (Louisville: Office of Theology and Worship, 2013), ix. Links to this study may be found at 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theologyandworship/marriage.

기본적인 원칙을 낳게 했다: “규례서에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 혹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다.”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데 있어서, 성(sex)의 위치 및 경계(parameters)와 관련하여 양쪽을 수용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현행 규례서에 나와있는 유사한 구절들에 기초하여 우리 교단이 키농의 경우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⁴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경로를 선택하지 않았다.⁵

II. 왜 이 길을 가는가?

그러나 그것이 개혁 전통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궁리하며, 앞으로 도전이 되는 길에 직면한 우리는 때로 그것이 개혁 전통에 부합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확인해 본다. 이러한 도전의 길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개혁 전통에 부합한가? 장로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동일성(uniformity)을 요구하지 않는가? 즉, 더욱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에 함께 헌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속한 우리 장로교 형제 자매들은 그들 또한 성과 관련하여 충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는 길을 추구하라고 격려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장로교 형태의 많은 부분들의 핵심 자원이었던 스코틀랜드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믿고 행하도록 부름 받은 것들에 반대되는 견해들을 긍정해 주기로 선택했다.⁶ 그들은 이러한 선택들이 오늘의 논쟁 혹은 불일치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³ 인용문과, 그 앞의 상세한 내용들은 미국 장로교 총회록에서 인용한 것이다 (Part I, Journal, One Hundred and Eighty-seventh General Assembly, Cincinnati, Ohio, May 12-21, 1975, pp. 254-9). 인용문은 258 페이지에 나와있다.

⁴ 오스틴 장로교 세미나리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친 은퇴 교수, Ellen Babinsky 는 키농의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이 여성 안수를 우리 교단의 필수적 교의로 만드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관찰했다: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신념이 미국 장로교의 필수적인 교의가 되었기 때문에 키농에게 안수를 주자는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Ellen Babinsky, “How Far Forbearance?: The Authority of the Presbytery Regarding Ordination,” Insights, Spring 1991, available at <http://home.earthlink.net/~valewis/forbearance.html>. 키농의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은 특정한 해당 “헌법 조항들”을 “준수”(subscribe)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해 준다 (Minutes, p. 259).

⁵ 이러한 새로운 경로에 대한 의지가 AI 와 개정안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거기에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분명한 언어들 사용되었다.

⁶ 이러한 문제들은 2014 년 5 월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학 포럼에서 다룬 “Proposed Deliverance”에서 탐구되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음.

이혼 후의 재혼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당회가 양심상의 이유들로 인해 이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혼한 사람을 위한 혼인예식의 집례를 거부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59년부터 시행해 온 양심과 관련된 구절을 만들었다. 신학 포럼에서 나온 최근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이혼한 사람의 혼인 예식을 허용하는 것이 교회의 의지였지만, 그러한 결정에 의해 강요될 수 없는 상당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 구절이 인정한 것이었다.”⁷

재혼에 관한 이러한 결정이 충실한 성적인 관계와 결혼에 대한 불일치를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정은 “교회가 신학과 윤리 문제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고,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 아닌 양심 조항의 자유를 통해 서로 다른 양쪽의 견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⁸ 우리 또한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 아닌” 다른 확신들에 대한 긍정을 “통해 논쟁 중인 양쪽의 견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려면, 미국 장로교를 위해 이러한 의지가 매우 중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도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범 교단적 입장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상반되는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도전의 길을 걸기로 결정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 교단 밖에서 작용하고 있는 세력들 및 우리 교단 안의 세력들에 의해 시험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단 밖에는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을 혼란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가 분명한데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없는 명백한 실패로 간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리들은 무엇이 충실하고 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지닌 자들로부터 흘러 나올 것이다.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우리가 존경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한 길에 반대하고,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실패자로 간주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복잡성과 우리가 선택한 균형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에 획일성을 요구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⁷ Theological Forum of the Church of Scotland, “Proposed Deliverance, May 2014,” 2.5.1.3.

⁸ Theological Forum of the Church of Scotland, “Proposed Deliverance, May 2014,” 2.5.1.3. 이 전의 보고는 2011년에 제출되었다.

확일성을 선택하고자 하는 충동은 또한 *내부로부터* 올 수도 있다. 확일성을 향한 동력은 우리 교단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왔다. 키농의 사건에서의 판결이 그러한 충동을 실체화한 한 실례이다.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의 DNA에 들어있는 확일성을 향한 압력과 더불어, 또한 우리 교단 밖에서 밀려오는 압력과도 싸워야 한다.

총회가 결혼에 대한 규례서의 언어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했을 때,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에 한 걸음 도약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새로운 마지막 단락이 첨가되었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목사들과 당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우리 교단은 결혼을 성별에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모두 충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단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의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도전이 될 것이다. 교단은 기독교 신앙을 여러 방식들 중 한 방식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그룹으로서, 이들은 그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탱해 준다. 교단은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탱해 주기 위해 구조들(실제 건물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정치 구조들)을 세운다. 이것은 교단이 어떤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지닐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서 다양성을 지니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모든 견해들을 취하는 교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충실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카톨릭과 같은 각각의 교단들은 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충실한 방식이다. 이들 각각은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지 않은 방식들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매우 충실한 방식들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러한 모든 방식들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 신앙을 장로교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의한 사람이 또한 카톨릭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도전들 중 하나에 직면한다. 우리는 한 교단으로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따르기로 결의하는가? 안수와 결혼에 대해 상이한 견해들을 모두 긍정해 주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따르며, 그 안에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라” 혹은 이와 유사한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카톨릭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PCA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한 교단에 속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왜? 왜 도전을 수용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하는가? 왜 이러한 도전의 길로 나아가야 하나? 왜 문제들을 간소화하고, 확일적 선택을 향한 충동을 따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획일성을 따랐던 과거의 순간들과 다른 미래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회들과 노회들은 매우 상이한 견해들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과 같다. 어느 한 견해를 얼마나 큰 다수가 지지하는지에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과 노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도전의 길은 이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공간을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양심의 소리를 충실히 듣는다는 것을 신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끼어 들어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주장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과거처럼 사회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로운 상황, 즉 획일성이라는 사치를 잃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 위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한 교단으로서 새로운 방식들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과 관련하여 무엇이 충실한지에 대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 년은 강렬한 증오로 점철되었으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진리를 실증해 주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전진하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진의 길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생산적으로, 덜 논쟁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상이한) 확신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 혹은 교단을 세울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 우리의 견해가 어떠한지, 우리 모두는 문제들이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도전의 길은 서로 다른 견해들에도 어떤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표현해 준다. 이 길은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려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와 매우 그리고 상당히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충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불일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기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죄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 길은 우리가 한 교단으로 남아있기로 결의하며,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한 가지 특정한 방식을 함께 따르기로 결의하면서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탱해 주도록 초청한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도전의 길은 우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상함을 헤치지 않겠다는 깊은 결단을 요구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 중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선한 양심을 가지고—이러한 특정한 교단 내에 남아서, 미국 장로교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식들로 우리 교단의 구조들을 형성하고 재형성하겠다는 결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결단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형태의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획일성과 그것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대신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학 포럼에서 사용한 말을 빌리자면) “성도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선한 양심을 지니고 함께 머물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기 위한 우리의 독특한 노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걷도록 초청 받고 있는 도전의 길이라 할 수 있다.